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4일 02시 38분



목차

목차	2
여수항뉴스 - 전체	3
민선 8기 여수시, 미래 신산업분야 등 5조 6천여억 원 투자유치	3

민선 8기 여수시, 미래 신산업분야 등 5조 6천여억 원 투자유치

2024.02.01 조회수 253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담당자 곽원 연락처 061-659-3382

- 민선8기 5조 5,706억 원 투자 및 일자리 2,644개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블루수소, ESS제조, 태양광 소재, 바이오디젤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확대
- 여수국가산업단지, 울촌1산단 등 연관 기업과의 동반성장 발판 마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민선8기 들어 블루수소와 ESS제조, 태양광, 바이오 디젤 등 미래 신산업분야 등을 포함해 19개 기업과 약 5조 5,706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 2,6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규모 및 일자리 창출면에서 전라남도 타시군 대비 최고의 성과로, 지난해 전라남도가 주관한 투자유치 평가에서도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 우수·유망 기업에 초점을 맞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산업·에너지 대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신·증설 투자 유도 ▲지역 내 산업 공급망과 연계성 높은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 산업·에너지 대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신·증설 투자 유도

그간 여수시는 정부의 탄소중립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고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블루수소와 ESS제조, 태양광 소재, 바이오 디젤 등 미래 신산업분야 등에 신·증설 투자를 이끌었다.

우선,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내에 들어설 수소 생산시설, 탄소 포집·액화·저장시설 등을 포함한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광양만권 수소환상망 사업과 연계해 여수산단으로 청정수소 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돼 지역과의 상생발전과 협력회사들의 동반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피복이나 전선 등에 사용되는 태양광 모듈용 시트 핵심소재인 EVA(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를 생산하는 제조시설과 바이오디젤 플랜트 생산시설 증설도 예정돼 있다.

전 세계 EVA 제품 수요는 연간 460만 톤 이상으로, 매년 9%이상 성장하고 있다.

국가산단 내 입주 기업의 50년간 축적한 소재 생산 역량과 경쟁력 있는 원료를 활용해 글로벌 EVA 제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바이오디젤 생산 플랜트를 운영 중인 기업에서는 국제 환경규제와 글로벌 바이오연료 시장 확대 흐름을 고려해 바이오디젤 플랜트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 지역 내 산업 공급망과 연계성 높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이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함은 물론 사업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독일기업(린데PLC)은 전 세계 산업용가스(수소, 질소 등)와 액화수소 생산 부문 점유율 30~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1위 수소에너지 기업으로 8억 불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수소에너지는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게임체인저로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며,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줄임으로써 전력 계통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유력 기업[나라다에너지(유)]과 울춘산단에 5천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시설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업은 세계 160개 나라에 진출해 매출 2조 5천억 원을 달성한 ESS용 리튬인산철 배터리·ESS장비 제조 분야 중국내 1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자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BMS)·시스템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이 기업이 자리하게 될 울춘산단은 포스코 제철과 여수산업단지, 배터리소재 등 이차전지 제조기반이 갖춰져 있어 해당산업의 비즈니스 최적지로 꼽힌다.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홍보 강화 등 행정적 지원 강화

시는 지난해 15개 투자(유망)기업에 대한 방문상담을 통해 지속적 사후관리와 함께 기업들의 고충사항 해소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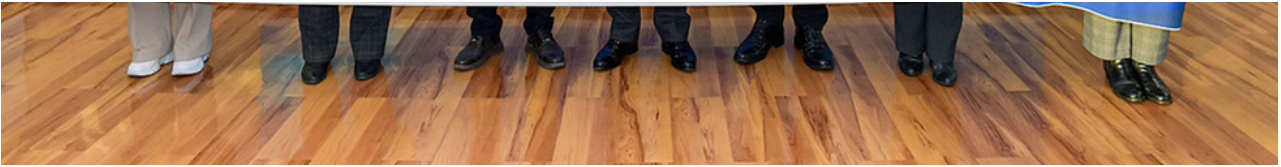
또한, 지역 내 투자기업들의 신·증설에 따른 인·허가 원스톱지원,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지원정책, 금융 및 세제지원 정책 등 최적의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시는 올해도 투자기업과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미래 신산업유치와 세계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투자여건 조성 및 기업지원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앞으로도 투자 기업들이 자기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남해안남중권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yeosu.go.kr>)



(<http://www.yeosu.go.kr>)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 일자리수상.jpg (97 hit/ 424.0 KB) [미리보기](#)
- 정기명 여수시장 축사.jpg (95 hit/ 496.7 KB) [미리보기](#)
- 준공식.jpg (94 hit/ 329.0 KB) [미리보기](#)
- 투자협약식 1.jpg (93 hit/ 355.2 KB) [미리보기](#)
- 투자협약식 2.jpg (91 hit/ 268.9 K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 여수시, 2월의 독립운동가, 서정 태생 '정보한 선생'.. > > 다음글 여수시, 설맞이 2월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15%...

Yeosu Web Contents

